삼는다. 따라서 Robertson은 인간의 구속을 계약의 중심으로 보았으나 McComiskey는 기업부여의 성취를 그 중심으로 보았다. 필연적으로 McComiskey의 계약신학은 구속사적 성격을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Robertson의 베리트 정의가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너무 좁게, 그리고 피홀림의 요소를 지나치게 일반화 했다. 그래서 모든 계약에서 피홀림의 요소를 찾아 내려고 애를 썼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설적 정의와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계약을 해석하려고 애썼다는 점이 두 사람의 공헌이자 특성인 동시에 약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베리트에 대한 정의가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입각해서 다시 내려질 필요가 있다.

참된 설교란 무엇인가?

Klaas Runia
번역 : 김세현

우리들은 오늘날 설교가 여러 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사회 과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들 모두 비평적인 일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는 그 자체의 비평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비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 모두는 현대설교에 무엇인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설교의 모든 현상과 현대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약간의 의문은 교회는 모든 설교를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며, 전달의 양식은 더 적절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단지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봉사에 여전히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만족인 것이다. 교회는 그 말씀이 과거에 선포되어 졌던 것 보다 가장 흥미로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실지로 듣는 사람은 —Gerhard Ebeling의 표현을 사용하자면—"제도적으로 인정된 단조로움"(institutionally asgured platitudes)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책명 : THE SERMON UNDER ATTACK(도전받는 설교) 전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2장

⊙WHAT REALLY IS PRECHING?(pp. 18-36)을 완역한 것이다. 여기 번역한 제2장이 전체의 핵심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소개 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로 각 장의 제목을 기록해 보면 *제 1 장 : CONTEMPORARY CRITICISMS
*제 3 장 : PREACHING AND THE BIBLE
*제 4 장 : PREACHING AND THE SITUATION OF THE LISTENER
*제 5 장 : RELEVANT PREACHING

*이 책의 출판 배경을 소개 한다면…
먼저 저자는 칼 바르트의 연구 대가이며, 벌 카우워 아래에서 수학하였다.
1980년에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Moore Thelogical College의 학장과 교수 회의의 초청을 받아 Moore College의 Annual Lectures을 하였다.
저자도 1956-1971년까지 호주의 Victoria, Geelong에서 조직 신학 교수를 지냈다.
이런 이유로 Moore Thelogical College의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였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비평은 우리의 설교 활동에 대한 감수성을 건드린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이 멸시할 수 없고, 한 유행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되고, 모든 종류의 거친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하나는, 이런 비평주의를 심각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이런 비평들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장 근본적인 질문—"참된 설교란 무엇인가?"—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설교의 갱신에 도달된다. 갱신이란 모든 종류의 속임수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더 나은 방법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Jerome Murphy-O Connor—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한다.

그는 기록하기를 "일단 평신도의 사도적 지위의 경험과 예배운동은 단지 기술의 단계에서 갱신만이 참 갱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된 갱신은 설교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무엇이 설교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 * *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독교 설교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신약 성경 자체는 기독교 설교의 결과이며, 또한 기독교 설교의 한 형태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음서는 소위 역사적 예수라 불리우는 사람에 대해서 단순한 역사적이고, 전기적인(biographical) 관심거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회의 회원으로서 저자들이 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관해서 그들의 교회 설교를 요약하고 있다.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에서 C.H.Dodd는 말하기를 자세한 연구결과로 마가복음에 관해서 복음주의자들은 "자신을 케리그마(kerygma)의 한 형태로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때때로 그 강조점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실이다. C.H.Dodd 자신의 결론은 "전체로서 취급된 4권의 복음서는 초기 사도적 설교의 표현"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초대 교회는 이런것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 2세기 말의 영국 국교를 따르지 않는 로마 감독인 히폴리투스(H:ppol/tus)의 작품으로 보통 제시되는 바인 무라토리안 경전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네권의 복음서는 "구원의 사실들"에 관한 최초의 사도적 설교를 포함한다고 한다.

초대교회의 삶에 대한 중심적인 설교는 어떤 것이었는가는, 신약성경이 설교에 있어서 30개의 서로 다른 용어보다 적게 가진것이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나타난다.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에 "keryssein"에 관해서 그의 논문에 모두 언급한 G.Friedrich는 정확하게 우리들의 '설교'에 대한 거의 포괄적인 사용은 단순한 어휘의 증대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내에서 살아있는 실제인 그 어떤 것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살아있는 실제에 대한 많은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운동은 바로 설교운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의 선구자요, 전령인 세례 요한의 설교 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도 근본적으로는 역시 설교사역이다. 마가는 기술하기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동하시고 가라사대 :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 : 14,15)고 하였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설교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적으로 그의 사역의 다른 양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그의 선포와 왕국이 가까운 장래에 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것들은 그 안에 그리고 그의 설교안에 왕국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수 자신이 12명(제자들)을 지적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동일한 과업을 주셨다. 즉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전세도 가지게 했다(막 3 : 14,15). 누가는 70명의 제자들의 이와 유사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반면에 그 후 우리는 이 12제자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어 졌다는 것을(막 6 : 7-13, 마 10 : 5-42) 읽을 수 있다. 부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은 계속 반복되었다. 이러한 명령이 초대 교회의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는 4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언급되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타난다(마28 : 19,20 막16 : 15 눅24 : 47,48 : 요20 : 21)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두에도 나타난다(행1 : 8).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두에도 나타난다(행1 : 8).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 주심 이후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새 기독교회가 설교하는 교회로 되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주와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 목 박히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했다(행2 : 36).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특출한 설교가이지만 스데반과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참으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모든 회중은 박해로 인해 흩어졌다. 우리는 행 8 :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읽

는다. 둘째로는 사도행전의 반은 바울이 으뜸되는 설교자로서 베드로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다시 그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모든 초대교회는 설교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보존 되어져 온 것들이 있는 한, 이 교회의 기록들이 설교 재료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은 놀랄일이 못된다. 참으로 이런 모든 기록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설교 재료인 것임을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그 시작이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　　*　　*

그러나 여기에서 더 이야기 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설교가 특별한 기독교 활동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은 아니다. 그것은 구약에 그 뿌리를 둔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선지자적 종교, 혹은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런지 모른다. 첫째로 이것은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 설명이 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징은 그의 백성(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므로 말씀 계시로서 그의 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욱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것은 구약이 종종 그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계시는 말씀 계시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를 원한다.

1.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기여하는 바, 가장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계시는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진 것은 그의 절대적인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1장에서 말하길 위엄있는 단순성(majestic simplicity)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창1 : 3). 그리고 시편 저자는 33장에서 "땅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를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고, 명하시매 견고히 섰더라"(33 : 8,9)이기 때문이다. 구속사에 있어서 그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과 함께 시작된다.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휴식을 하고 있다. 시내산 언약 골 십계명의 법은 '열마디의 말씀'으로 주어졌다"(참고 신4 : 13, 10 : 4). 그리고 "그 법속에 이런 신적인 말씀과 병행하여 또 모든 경우의 타당성과 함께 우리는 특별한 상황을 위한 특별한 신적 의지에 대한 선포인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

2.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실 때에 그의 활동은 결단코

계시된 말씀 이외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놀랄일이 못된다. 왜냐하면 역사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모든 역사의 애매함과 함께 나누고, 꽤 자주 모순된 해석에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이 활동하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눈 앞에서 알려진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노예 상태인 애굽에서의 생활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는 먼저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구속할 것임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출3 : 7-10). Th.C Vriezen은 지적하기를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반면에 G.Von Rad에 대항하여 그는 "구약 자체는 항상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예언된 말씀에 의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구약 증거에 대한 만장일치의 판단에 따라서 선지자적 말씀은 "경험적인(posteriori) 해석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항상 사건 속에서 선험적인 것으로서 먼저 인내한다. 역사속에서 선지자적 말씀과 실현 모두는 그들의 목적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을 지닌다."

3. 셋째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 이야기와 그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구속하시는 활동이 세대와 세대간에 "입의 말씀"에 의해서 전해졌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시한다. 모세 율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참고 사항을 발견한다(예, 출13 : 8,14) 신6 : 21).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시편 78편의 초두에서부터 시작된다.

>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78 : 1-4)

선지자적 문학속에서 보다 더 광범위한 전망은 열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 활동(말씀으로서의 전달역사—역자주) 속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참고 사2 : 1-4, 25 : 6-9, 60 렘3 : 17 미가4 : 1-4, 눅8 : 20상반절, 주의 종에 대한 맑씀 참고, 사42 : 4, 49 : 6, 52 : 13-15).

*　　*　　*

이러한 미래는 성령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하늘의 민족들 사이에서의 간격을 부수어 버렸을 때인 오순절날에 시작되어졌다. 요엘이 이미 예언한—"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2 : 21, 참고, 요엘2 : 32)—것이 이제는 사실이 되어졌다. "누구든지"는 여기서 더 이상의 구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나 이러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의 설교를 전제

로 한다. 바울은 이것을 롬10 : 14,15에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한다.

호흡이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처럼,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다. 복음의 설교가 없이 신앙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은 원리면에서 선교자와 회중 선포(설교)사이에서 어떤 차이도 없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C.H.Dodd가 케리그마(kerygma : 선교사적 설교)와 디다케(didache : 회중적 설교) 사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주장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신약에서 이 용어들은 종종 함께 사용되어졌고 심지어는 상호교환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용어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선교사적 설교인 케리그마(kerygma)는 정경일 것이고, 항상 본질적인 문제는 디다케(didache)속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케리그마(kerygma)의 말씀을 받아 들이는 외견인(outsider)들은 그것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교훈을 필요로 한다. 회중적 설교에 있어서 강조점은 신앙과 생활의 함축성을 보여주는 케리그마(kerygma)의 펼쳐진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중은 역시 지속적으로 케리그마 자체를 들을 필요가 있다. 구원의 말씀은 사진과 같이 단 한번만 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설과 같이 단 한번만 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감으로 '줄거리'를 안다. 그러나 기독교 회중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어야만 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황하는 아들, 딸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기쁨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주일날은 없다.

* * *

그러나 우리는 더욱 더 깊이 신약을 연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기독교 설교가 회중과 세계에 대해서 절대 필수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줄 뿐 아니라, 설교의 심오한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명백하게 신약은 설교의 본질에 관한 특별한 논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초대 교회가 그런 논문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너무 바삐 움직이고, 주님이 그들의 노력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았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속에는 설교의 본질로서 간주되어져야할 충분한 가르침이 있다.

1. 첫째, 설교를 함에 있어서 사용된 용어들이 있다. 이것은 더 광범위한 논의의 여지가 없다. 관심을 가진 독자는 6개의 중심용어를 논의한 1978 Tyndale Bulletin을 참고할 것이다. 나는 결과의 요약을 인용했다. 무엇보다 먼저 keryssein(=선포하는 것) 단어의 사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설교가 20세기 전에 우리의 삶속에서 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으로서 구원 사건에 대한 선포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선포는 믿고 듣는 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는 그에 의해 가져온 구원속에서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다. keryssein과 동의어로 사용된 euangelizesthai란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martyrein(=증거하다)란 동사는, 현대 설교에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참된 설교는 사도적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Didaskein(=가르치다)는 설교자가 또한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 의미와 그 결과에 관해 말씀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propheteuein(=예언하다) 그리고 parakalein(=위로, 훈계하다)는 말씀이 추상의 여지로서가 아니라 모든 듣는 자들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신약에 사용된 다양한 용어는 기독교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조명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 이 말씀 자체가 듣는 자들에게 이르게 된다. 참으로 우리는 더욱 더 나아가야 하며, 기독교 설교는 인간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야 한다. G.Friedrich에 따르면, "선포되어진 말씀은 신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선포되어짐으로 창조한 것은 효과적인 힘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설교는 단순한 사실들의 전달이 아니고 그것은 사건이다. 또한 선포되어진 것은 발생한다.

* * *

2. 이 결론은 두번째의 탐구에 의해 확인되어진다. 신약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거기에는 논의중인 의문들에 빛을 던져 주는 흩어져 있는 참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복음서들에 관심을 가지는 한 그것은 두 가지의 사실을 지적하기에 충분하다.

첫째로, 우리는 제2이사야서에 "좋은 소식의 전달자"라고 한 예수 자신의 동질성을 지적한다. 이것은 그의 설교에 특별히 자질을 부여한다. 그는 단순히 종말적인 전체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존재론적인 실체로 전파한다. 그의 설교에 있어서 왕국의 구원은 이미 현존하고 있다. Herman Ridderbo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의 설교는 예언과 서술로서 특징지어질뿐 아니라 선포와 선전으로서 특징된다" 그의 말씀은 텅 빈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낸 바 그의 일 속에서 목적하고 성공시키는 바 성취인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표명인 것이다(사55 : 11).

둘째로, 우리는 그의 설교 속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는 예수 자신의 동질성을 지적한다. 이것들은 그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설교 속에서 표현된다. 심지어 예수는 신적인 말의 창조성 속에 함께 공유하는 사도들의 말을 의미하는 바 동질성을 내표하고 있다. 눅10 : 16에는 예수가 특별한 설교 선교에 있어서 보낸 바 된 70인들에게 아주 쉽고 평이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 들이는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거절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거절한다는 것이다"(참고, 마10 : 40). 부활 이후에 이 동질성의 약속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반복되어져 왔다. 마28장에서 예수의 선교 대 명령이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는 "세상 끝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마28 : 20).

요한복음에는 더욱 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20 : 21). 그때 예수는 그들에게 숨을 내 쉬며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만약 너희가 어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20 : 22) 여기서 동질성이 완성 되었다.

복음에 대한 사도적 설교에 있어서 왕국 기능의 열쇠 : 왕국은 믿는 자들에게 열려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닫혀져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술에서도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동질성을 발견한다. 여러번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 또는 '말씀'으로서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다(살전1 : ,8, 살후3 : 1, 골1 : 25, 4 : 3, 참고 • 딤후2 : 9, 4 : 1, 벧전1 : 23 상반절, 히4 : 12 상반절). 이러한 표현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취급되지 않아야만 하는 언어의 양상은 아니다. 반대로, 바울은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용어를 구약의 기록된 말씀을 위해 사용한다(참고, 롬6 : 6,9, 고전15 : 54, 갈5 : 14). 그리고 이런 모든 구절들—"하나님 자신은 성경속에서 말하는 자로서 확실하게 간주 되어진다"—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의 자신의 설교에 있어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설교의 참 주제이고, 구약으로서 동일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에 아주 분명하게 되어진데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 : 13)

사도적 설교는 사람에 의해 고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적 설교가 참 진리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진술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인간이고, 어떤 부분은 신이라고(자유주의적 견해) 결정하도록 하는 약간의 여지가 있는 반면에, 또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즐겁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바르트의 견해). 그렇다. 이것은 정말 아니다. 그 참 본질이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종의 말 속에서와 말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 선포되어진 말씀이 왜 효과적인지를 설명해 준다. 이런 효과는 그런 자질이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설교자의 자질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살전2 : 10 고후1장)이 효과는 누구의 말씀인가가 그에게 전적으로 기인한다. 그 비밀이 속격속에 놓여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목적을 위한 속격(=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이 아니라 주격이다. 하나님은 참된 선포자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모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좌우에 날 선 어떤 검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히2 : 12) 또한 바울 자신은 기록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주력의 소유격)"(롬1 : 16 참고, 고전1 : 18) 이런 모든 귀절들은 동일한 근본 사상을 나타낸다. 즉 동질성의 문제이다.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 * *

그러나—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이거시 오늘날 우리의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가? 바울의 입장(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은 너무 독특해서 사도들과 그의 설교와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설교를 아마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감히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자신의 설교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들의 독창성을 인정해야 한다. 부활의 증인들인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 자신에 의해 위임 받았다. 이미 그의 죽음 이전에 위로자, 협조자, 상담자로서 특별한 성령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참고, 요20 : 21-23, 행2 : 1 상반절, 1 : 8 비교). 이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그들의 설교와 함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안에

서 신적 계시에 대한 우연한 부가물이 아니라 Herman Ridderbos가 기록한 것과 같이 "사도적 설교로서의 그들의 구속적인 설교는 계시의 활동에 속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했다. 이들은 계시의 한 도구들이며, 그와같이 그들은 교회의 기초이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최종적인 신앙의 한 규범으로서의 그들의 설교를 제한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설교는 사도들의 설교와 결단코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 속에서 계시의 도구들이 아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특별 계시에 의해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참고, 갈1 : 11,12,15,16). 우리는 우리 앞에 온 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들였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결단코 직접적이지 못하고 항상 2차적이다. 이것이 현대 설교자들과 사도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설교가 단지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 자신의 설교와 그의 동역자들의 설교 사이에서 결코 구별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가 그의 회중들에게 디모데에 관해서 기록할 때(살전3 : 2,3 고전 16 : 10) 혹은 그가 디모데 자신에 대해 쓸때(딤후2 : 2, 4 : 2) 현대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가 그(바울)가 사용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 게다가 딤후2 : 2에 디모데가 그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도록 책임을 지운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didaskein)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의 연결이다(참고, 딤후1 : 4 :, 딤전5 : 17, 6 : 20). 반면에 3차적으로는 그들이 선생이면서 설교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바(차례 차례로는 바울로부터 들은 바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실제 차이점은 없다. 이러한 "신실한" 연결은 처음이자 근본적인 연결로서 동일한 신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의 근거에서, 우리는 신약으로 설교하는 것이 사실들의 전달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설교는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참고, 롬1 : 1, 3 고전15 : 1 상반절 등). 그러나 설교 그 자체는 인식 그 이상의 것이다. 설교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의 구원의 능력은 청중들을 위해서 현재하는 실제가 되는 것이다. 참된 설교는 사건이다. 바울은 "복음 속의 능력"으로(롬1 : 16) 복음을 지칭한다.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무엇인가 일어난다. 다음 절에서 바울은 아래와 같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계시되고 있다." (1 : 17)

우리들은 바울이, "계시한다"는 동사를 사용할 때와, 또 그것을 현재 시제로 사용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의는 선포된 복음 속에서 꼭 묘사 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심지어 1차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되었다. 그것은 현 실체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또는 John Murray와 같이 기록하기를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된 상태를 짊어 지도록 하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부패의 영역에서 구속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역동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우편을 통해 배달되고 그 후에 누군가가 제공되어진 기사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 설명서(설립 취지서)와 비교되어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가 현 실체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 그 자체가 빛나는 연애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 편지 속에서 기록자 자신은 그런대로 말하자면 잘 해 나간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함에 있어서 더욱 더 깊고 풍부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씀을 보내는 자로서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방식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말씀과 함께 만나야 한다. 정확하게 Heinrich Schlier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말씀 속에 나타나시고, 듣는 자들을 만난다. 속격으로 지시된 모든 실재는 참으로 동일하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야 앞에서 '십자가의 말씀 속에'에 나타났다 : 화목은 '화목의 말씀' 속에서 나타났고, : 영광은 '영광의 말씀' 속에서 빛난다. 삶과 죽음은 말씀의 출현을 만든다. 등… 그리고 이것은 역시 말씀 속에서 계시자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 일어났다."

*　　*　　*

우리가 이제 신약을 능가할 때 또 즉각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으로 옮길 때, 신약과 개혁주의 사이의 어떤 적절한 설교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교부들은 매우 높은 설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 크리소스톰과 어거스틴을 언급한다. 그 이유는 순간적으로 개혁주의로 나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이 신약 자체의 가르침을 재발견한 더 좋은 그들의 설교신학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설교하는 것은 특출한(par excellence) 은혜의 수단이 된다.

루터는 바울의 칭의론이 죄인이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에 따른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발견했을 때, 설교는 예배 행위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되어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선언이 이루어진 복음의 전파속에 있기 때문이며, 루터의 설교는 매우 역동적인 설교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것은 큰 논쟁이 일어났던 투쟁속에 나타난 계시적 사건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설교는 영혼을 위한 한 투쟁이었다. 영원한 논쟁은 설교하는 순간에 이루어

졌다고—그 논쟁이란 삶과 죽음의 논쟁, 빛과 어두움, 죄와 은혜,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사건이었다.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그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 믿음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모두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 루터는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입의 한 조각"으로 소명에 있어서 무엇이든지간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그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신의 성례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신앙 문답을 하고, 용서 하신다"고 말한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칼빈도 역시 높은 설교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도 역시,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의 조각들이다. 그도 역시 설교 그 자체를 살아 있고, 계시적 구원 사건으로 강조한다. 그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된다"고 말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고백 속에서 설교함에 있어서 진술들을 삽입했다는 이유로부터 개혁주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즉각적으로 '창의'에 관한 논문 이후에 Augsburg Congession(1530)에서는 목회 사역의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목회 사역의 직무에 짜여졌던 그런 신앙을 얻는다는 것은 즉 복음과 성례를 제공한다. 수단으로서 이것들을 통하여 그는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어디서 언제 그가 기뻐하는지 믿음의 역사로 성령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고백적인 진술은 쯔윙글리의 후계자인 Heinrich Bullinger에 의해 띄어진(1566) (Confessio Helvetica Pasterior Second Helvetic Confession의 제1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은 표준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자신이 교부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 같은 장에서 Bullinger는 또한 매우 간단하다. 예리하게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사 is(=est)는 분명하게 그 정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나타나는 바 참된 Bullimger의 의도인 것이다.

> "그런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성경)이 소위 율법적으로 설교자에 의해 교회내에서 선포되어 질때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졌고 받아들여 졌다는 것을 믿는 다"

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것과 같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높은 설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진술이 많은 설교에 대해 조심스럽고 경험적인 분석에 근거한 정의로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설교가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술에 의해서 의미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진술은 다만 신앙 고백인 것이다. 그들은 성경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포함하여 나타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부터 문제를 삼는다. 우리는 결단코 Helvetic Confession속의 Bullinger의 말을 잊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약속에 의해 진전되어 졌다 :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마 : 10 : 40, 눅10 : 16 요13 : 20)" 이것은 모든 참된 설교의 심오한 비밀인 것이다.

* * * *

정통 개혁 전통에서 이런 동일한 높은 견해를 늘 지속하여 왔다. 최근에 이런 전통을 대표하는 설교학적이고 교리적인 많은 작품들에서 유명한 Bullinger의 진술은 찬성과 동의로 언급되어져 있다. 우리 당대에서 개혁주의의 이런 높은 견해는 칼 바르트에 의해서 다시금 활기 왕성하게 변호되어져 왔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로서 모든 계시의 개념을 확실하게 상실해 버리고 구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강한 반작용 속에서 인간의 하나님의 발견으로 대체되어진 바르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계시는 완전히 삼위일체적인 활동이다. 아버지 자신이 그의 아들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자이며 계시이고 계시되어진 것이다. 모든 영원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도록 결심했다. 그때에 성자 하나님은, 그가 인성을 몸에 지니고 나사렛 예수로서 인간이 되신바 그 자신의 인격과 사역속에서 이 계시를 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열린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 계시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는다. 바르트의 이런 진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직접적인 동질성이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다. 모든 개혁전통의 입장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양상을 구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번째 양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시된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성경은 하

나님의 말쓰의 두번째 양상이다. 마지막으로는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전지자적이고 사도적인 증거로서의 선포인 설교는 선포되어진 말씀으로서의 세번째 양상이다. 진실로 두번째 양상인 성경은 첫번째와(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세번째(설교)는 두번째 것과 동일하지 않다. 두번째 것과 세번째 것의 양상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직접적인 동질성에 의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과 설교의 이런 양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하기 쉬운 인간의 증거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서 또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독자와 듣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런 약간의 언급으로부터 바르트 역시 매우 높은 설교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견해는 Second Helvetic Confession의 est에 약간의 여지가 있다. 사실에 있어서 바르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찬성하면서 유명한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Bullinger와 Barth는 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신 구약은 이 계시에 대해 증거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들은 또한 참 설교란 이 성경의 증거에 대한 선포라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의 방법은 나누어 진다. Bullinger는—다른 개혁자들이 모두 완전히 동의하는—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성경에 대한 신실한 선포일 때에 그 설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Barth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다기 전에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 자유주의와 많은 신 자유주의와의 견해를 비교함에 있어서 Barth의 견해는 매우 높은 것이다. 즉 그것은 성경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해야 한다는 설교에 대한 견해이다. 사실 Barth는 설교자의 유일한 과업을 계시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선지자적 사도적 증거를 해석함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싫증난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설교자는 그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안식의 말씀을 가져 오도록 할 것인지 어쩐지에 대한 의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께 매우 자유롭게 하도록 둔다. 모든 설교자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자신의 말 속에 성경적인 증거를 반복하는데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Barth의 모든 설교이론인 것이다. 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좋은 이론이라고 말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아름다움은 유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단성성에도 놓여 있는 것이다. 모든 설교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실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많은 젊은 신학자들은 Barth의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행위이고, 또한 설교 속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들은 선포 되어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거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데에 그와 함께 동의한다. 교리적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질물하기를 그것이 또한 설교학적으로 사실인가? 하는 것이다. 설교가 자신의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 이상은 아닌가? 설교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소 즉 한편은 성경의 말씀과 또 한편은 청중의 삶을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가? 설교하는 것은 원형 대신에 타원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 원형은 중심을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타원은 두개의 촛점을 지닌다. 설교에 있어서도 두개의 촛점이 있지 않은가? 즉 성경과 청중 나는 이런 비평을 근본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비록 내가 제4장에서 보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비평에 의하여 제공된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설교는 성경으로부터 청중에게로의 단순한 일방적인 운동이 아니다. 나는 설교가 그것보다 더 복잡한 것이라고 믿는다. 설교는 그들의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있는 백성과 함께 성경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과 접촉이다. 그리고 준비 하는 것과 전달함에 있어서 설교는 이러한 촛점은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서로 연관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성경과 청중의 상황과의 이런 상호 연관성은 또한 내가 1장에서 언급한 많은 비평주의에 대한 해답인 줄 안다. 사실 나머지 장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